

역사 왜곡 거짓의 나라 대한민국이 살려면 교회가 회개해야 한다

성경말씀: 사28:7-19

요즘 나는 사람이 돈이나 물질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낀다.

창1:26-27,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물질 이상의 귀중한 가치들을 추구해야 하는 존재
지난 4-5년 세월호 사건 선동, 박근혜 대통령 탄핵, 수없는 거짓말, 좌파 문재인 정부 등장
지난 4-5년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길게 느껴진다.

가장 참기 힘든 것은 좌익 인사들의 위선과 거짓: 가장 깨끗한 척 하는데 가장 더럽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크게 책망하신 대상: 종교인, 위선자들, 독사의 자식들
나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위선과 거짓을 보면서 심히 부끄러움을 느낀다.

특히 요즘 들어 가장 큰 문제: 역사 왜곡, 말이 왜곡이지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다.

장래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아이들에게 옳지 않은 사실을 주입하면 그 결과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일본에게 역사 왜곡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실제 우리나라의 역사 왜곡을 좌익들이 진행하고 있음,
이대로 진행되면 나라가 망한다. 거짓은 진실 앞에 견디지 못한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일
학교가 역할을 못하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려고 오늘 몇 가지 진실을 말하려 한다.

2019년 4월 13일(토), 조선일보 사설, <누가 대한민국 역사를 훼손하는가?>

1. “매우 위태로운 징조는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민이란 누구인가'라는 국가와 국민 정체성(正體性)이 동요하고 있는 것이다. 주춧돌이 흔들리니 나라 전체가 요동친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발언을 통해 "인구 5000만 명이 넘으면서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 '30-50클럽' 7개국 가운데 2차 대전 후 신생 독립국은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일부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역사 그대로 보지 않고 100년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것은 자부심을 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귀를 의심할 이야기다. 대한민국 건국이 100년 되었다는 이야기?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되었다.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아는 사실, 이것을 무시하고 1919년 4월 11일에 상해에서 임시 정부가 세워진 것이 건국이라는 것은 심각한 거짓말
2. 대통령 발언 사흘 전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는 정부 청사가 있는 세종로 네거리 빌딩들에 독립운동가 10명(여운형·남자현·김구·안중근·김상옥·윤봉길·유관순·이봉창·안창호·이회영 등)의 전신 그림을 담은 가로 100m, 세로 17m 크기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외교부 청사에는 김규식·유관순·안창호의 얼굴, 교보생명 빌딩에는 정부 청사 인물에서 이회영을 뺀 9명의 전신 초상이 걸렸다. 그러면서 상하이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李承晩)만 쏙 뺐다. 임시정부와 무관하거나 독립운동 계열을 달리했던 인물들은 대거 포함됐다. 여운형은 임시의정원 의원이었으나 해방 후 건준(건국준비위원회)을 세우면서 임정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1920년 상하이에서 고려 공산당 가입, 좌익 활동, 좌우 합작을 하려던 인물, 반 대한민국 세력으로 보아야 함
3. 매년 국민에게 5000억원 가까운 시청료를 반(半)강제로 걷어 가는 공영방송 KBS는 "이승만과 김일성은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기 위해 데려온 괴뢰"라면서 "(이 전(前) 대통령을)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내용을 전파로 내보냈다. 아무리 공(功)과 과(過)는 같이 간다지만, 이진 처칠 빼고 영국 역사, 드골 빼고 프랑스 역사, 아테나워 빼고 독일 역사를 쓰는 식이다. 이렇게 각박한 인간들도 김일성 빼고 북한 역사를 쓰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 앞장서는 도올 김용옥
4. 대통령 아랫사람만 이런 게 아니다. 대통령은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일본군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만든 해군의 역사가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라고 했다. 6·25 전쟁 때 가장 많이 목숨을 바친 육군 그리고 공군을 대한민국 울타리 밖으로 내친 것이다. 대한민국 육군을 무시하면 안 된다. 국방부장관 등 다 배제하고 있다.
5.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당시 북한 장관을 지내고 '조국해방전쟁 훈장'을 받은 김원봉에게 대한민국 훈장을 수여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가 등장하는 영화를 본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싶다'는 댓글을 올린 것이 계기다. 대통령 속뜻은 귀신처럼 헤아리는 MBC는 200억원

예산으로 김원봉 드라마를 만들어 다음 달 4일부터 방영을 시작하고 KBS도 올 광복절 그를 주역으로 하는 대하드라마를 내보낸다고 한다. 머지않아 국립묘지에 김원봉의 가묘(假墓)가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영화만 보면 문제가 생긴다. 탈원전, 후쿠시마 원전 관련 수많은 거짓말

6.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 '공존' '동반자(同伴者)'를 말했다. 딱 2년이 흐른 지금 그 말들은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다. '증오' '복수' '적개심(敵愾心)'이란 단어가 온 나라를 휩쓸어 가고 있다. 증오는 새끼를 빨리 치고, 복수는 자기를 먼저 무너뜨리고, 적개심은 내 안에 독(毒)을 품다. 이렇고도 밀려오는 해일(海溢) 앞에서 나라가 무사할 수 있겠는가.
7. 이러한 가운데 4월 11일 현재는 낙태죄 위헌 문제 심사를 하고는 결국 합헌 결정, 태아는 생명이 아니라는 데 의견 모음, 커다란 거짓
8. 4월 3일 제주 4.3 사건, 마치 정부 군대와 경찰이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한 것으로 계속 보도 5.10일 대한민국 국회 개원, 8월 15일 건국을 방해하려는 남로당 빨갱이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
9. 1948년 10월 19일이 되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1948년 10월 19일, 여수14연대 중 1개 대대가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해 여수항에 집결. 남조선노동당 일원 지창수가 병기고와 탄약고를 장악하고 반대자 3명을 사살하며 부대를 장악. 반란군이 여수 읍내로 진격해 관공서와 주요기관 장악하고 이어서 순천을 점령. 반란군이 여수·순천·고흥·보성·광양·구례·곡성 지역 전체를 장악. 역시 남로당 빨갱이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 진압하다 보니 양민 학살

정부는 이런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 세워진 기관, 공산주의자들을 이렇게 척결했기에 대한민국 가능 이제 와서 원인은 이야기하지 않고 양민들이 죽은 것만을 부각해서 가르치면 안 된다.

10. 반일 하기 위해 이제는 동학 혁명까지 파고 들어가려고 한다.

역사는 그 당시의 피치 못할 사건, 그 당시의 눈으로 보아야지 지금의 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런 모든 일을 겪으면서 지금의 대한민국 탄생, 발전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것을 부정하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역사관: 과거의 쓰라림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교훈을 찾으면서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

<역사 왜곡 거짓의 나라 대한민국이 살려면 교회가 회개해야 한다>, 명심하라: 거짓이 지속되면 망한다.

이사야서

성경은 우리에게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말해 준다. 구약 왕들의 역사와 대언서들

이사야서 주전 700년경, 100년이 지나면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 멸망되고 70년 포로 생활 남왕국 유다, 국가가 망하려는 시점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강력한 경고를 준다.

이사야는 그 당시 유다의 통치자들이 파위게임을 그치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촉구한다.

이사야는 자기가 사랑하는 예루살렘에 검은 구름이 오는 것을 대언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였다.

먼저 28:1-6에는 북 왕국 이스라엘(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온다.

핵심: 에브라임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절될 것이다(BC 721년 멸망). 그 다음은 유다이다.

에브라임 특히 그 수도 사마리아는 아름다운 도시요, 국가지만(1) 교만으로 인해 멸절된다(1).

이들의 상태는 술 취함으로 표현된다(1, 3, 7).

사마리아는 아름다운 꽃 같으나 꺾인 꽃같이 멸절당한다(4).

그런데 북 왕국 이스라엘만이 문제가 아니다. 유다도 이들과 같은 운명이다(7-8).

유다에는 교만과 술 취함 외에도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다(7): 제사장, 대언자 등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술 취해서 토한다(8).

멸망의 원인: 재물이 늘어나면서 타락이 시작된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대다수 사람이 가난은 견디는데 풍요는 견디지 못한다. 대다수 제국들이 풍요 때문에 정신이 해이해져서 망하게 되었다. 로마 제국: 연회, 술 취함, 동성애, 흥청망청 지내다가 외세의 침입으로 망한다.

이때에 백성들은 교만하게 되고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들의 인도를 거부한다.

좋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경멸한다.

또한 백성들은 대언자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9-13).

9-10절은 술 취한 자들(대언자들과 제사장들)이 대언자 이사야를 조롱하는 말

우리를 아이들로 아느냐? 왜 아이들의 단순한 어휘로 같은 말을 반복하느냐?(10절, 14절 참조)

10절: 하나님의 말씀 경멸: 왜 단순하게 반복하느냐?

아이들에게는 단순한 것들을 반복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사6:9-10

현시대 사람들도 비슷하다. 복음의 단순한 메시지를 싫어한다(고전1:18-31).

이에 대한 이사야의 대답(11): 너희가 너희 말로 된 단순한 메시지를 거부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쓰는 외국인들이 너희를 침략할 것이다(신28:49; 사33:19; 렘5:1).

그들은 아시리아 사람들(11). 바빌론 사람들, 에브라임과 유다가 수모를 당함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려 하나(12),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함.

단순하게 들리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다가 결국은 외국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아이들처럼 더듬거리며 교훈을 받기 시작함(13).

이들의 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에 의존하려 함(15, 18).

여기서 지옥과 사망과의 합의란 자기들이 결코 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뜻함(15, 18).

지금 식으로 말하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15), 다 잘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피난처는 거짓이다(15). 지금의 대한민국 상태, 선을 악, 악을 선(사5:20-21)

거짓(Falsehood): 성경은 자기를 주인으로 여기고 주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근본적인 거짓으로 표현한다(사28:15). 이 경우 거짓은 그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포함한다.

이처럼 거짓에 매여 사는 사람은 거짓으로 말미암아 잘못을 범하고(암2:4) 부어 만든 우상을 섬기며(렘 10:14) 거짓 꿈을 꾸다(슥10:2). 이들은 또한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 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거짓으로 말하며 두 마음을 품고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므로 성경은 그들을 거짓 대언자라 부른다(시12:2; 렘29:9). 다시 태어나지 않은 자연인은 본질상 마귀의 자녀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며 섬긴다(롬1:25).

거짓의 근원: 예수님은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버지라고 규정하셨다(요 8:44).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거짓의 산: 그 뒤에 누가 있는가? 마귀가 있다.

거짓 대언자들이 있다: 진리를 진리라고 외치지 않는 자들, 이렇게 나가면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거짓 평안을 심어 주는 자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안 된다고 목사들이 강단에서 외쳐야 하는데 교인들 떨어져 나갈까봐 눈치 보는 목사들

성경은 이런 자들을 거짓 대언자, 거짓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진리를 전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아오나 속으로는 약탈하는 이리이다(마7:15).

거짓 사도(False apostles)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 없이 스스로를 사도로 위장하는 사람(고후 11:13). 특히 초대 교회에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여 이득을 보려고 몰래 교회에 기어들어 오는 자가 많았다. 현재에는 사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전통이나 영적 선물(은사) 등을 통해 사도 계승권을 주장하는 자들 역시 현대판 거짓 사도라 할 수 있다(계2:2-4).

거짓 형제(False brethren) 그리스도인 형제로 가장하고 교회에 들어와 이단 사상 등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자(고후11:26; 갈2:4).

하나님의 해결책(16)

그들의 소망은 참된 기초석에 있다(16). 그것은 메시아를 가리킴(벧전2:4-7; 롬9:33; 막12:10; 시 118:22).

이들이 견고한 바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폭탄으로 거짓의 산을 쳐부수어야 한다(17). 진정한 자유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다. 요8:32, 36, 진리 .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바르게 역사를, 세상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바르게 투표해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익이 팽배한가? 모두가 평등하게 다 잘 사는 나라

이것은 거짓말이다. 받아들이는 이유: 일하기 싫어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보편적으로 다 잘사는 나라, 인권 보장, 소유권 보장

그런데 모두 평등하게 다 잘 사는 나라가 되지는 않는다. 인간의 죄, 욕심, 고치려고 노력할 뿐이다.
그런데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급진적으로 반대로 가면 망한다.

그래서 결국 역사까지 왜곡하며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 자유 민주주의 파괴 시도

자유를 잃으면 다 잃는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가 가장 큰 독재, 인명 살해
여기서 멈추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유다처럼 망한다(18, 19).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결국 우리를 옴아낼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께로.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감사로.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 공부해야 한다. 약자를 도와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인간이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 북한 2500만 동포 자유 통일, 인권, 재산권 주어야 한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 하나

거짓을 버리고 진실의 편에, 진리의 편에 서자. 주님의 은혜를 기도한다.